

## 2025 우주선 단기선교여행 돌아보기

이름: 고승민

대부분 단기선교여행의 경험이 삶에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평가해서 다시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1. 단기선교 기간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선생님들과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

### 2.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 3.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장소와 그 이유

태국에 도착한 첫 날,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눈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날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 4.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요약한다면...

태국 선교에 동참할 상황과 마음, 여건을 모두 열어주셨다...

선교에 갈 수 없던 상황을 해결해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 가볼까?"하던 제게 여러 사람을 통해 권면하셔서 갈 수 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두 일하셨습니다.

### 5. 되돌아와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건강의 문제와 다시 선교 이전의 게으른 신앙 생활로 돌아갈 뻔한 문제

### 6.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은?

최근 여러 비행기 사고와 태국-미얀마 지방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다 보니, 안전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태국 선교 기간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 안전한 선교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의식하지 못 했는데, 서현쌤이 "약이 많이 남은 것을 보니 우주선팀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한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선 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 7. 잊지 못할 에피소드

마야몰로 이동하던 길에서 두리안을 파는 매장을 보시고 눈이 반짝반짝 빛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따라딕에서 치앙마이로 돌아온 날, 야시장에서 지은쌤과 안나쌤이 열심히 흥정하기 위해 노력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8. 지체 재발견! 우주선 안에서 이 지체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헤림샘을 바라보면 항상 누군가를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 지체, 한 지체를 마음 가득 사랑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9. 태국 치앙마이 우따라딧 선교 추천사 및 충고! 가기 전에 이것은 꼭 알아두자!

- ☐ 썸태우를 타기 전에 우선 '그랩'으로 예약하세요! 그랩이 무조건 쌉니다. 바가지 맛을 일도 없어요.
- ☐ 예미희 선교사님은 선교회에 상처가 있던 분이세요. 꼭 선교사님께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을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 ☐ 태국이라는 나라에 선입견을 갖거나 한국 사람/태국 사람이라는 구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공동체예요.

10. 힘들었던 부분, 부족했던 점. 보완했으면 하는 점. 다음 태국선교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점검하자 라는 부분은??

이번 선교에서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다른 무엇도 아닌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항공기 사고, 납치 등의 문제가 선교 직전 끈임없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번 선교는 제가 갔었던 다른 선교와 달리 낯선 선생님들과 나이가 다양한 선교였어요. 특히 저는 뒤늦게 합류하다 보니 모임도 몇 번 빠졌었죠. 다음 선교에서는 서로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4 1장 이상 정도의 분량으로

간증문 써서 다음주 금요일까지(2/21)

gukkisand@naver.com 으로 보내주시거나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